문의 info@galleryfim.com I 02-790-1040

Plastikos	
참여 작가	이성경 (Sungkyung Lee), 한성우 (Sungwoo Han), 최봉석 (Bongsuk Choi)
전시 기간	2026 년 11 월 21 일 – 12 월 24 일 (오프닝 리셉션 : 11 월 21 일 5-8PM)
장소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개관 시간	화–토 11:00 – 18:00 (일, 월 휴관)
주최, 주관	핌 (FIM)

전시 내용

핌(FIM)은 2026 년 11 월 21 일부터 12 월 24 일까지 올해의 마지막 전시《Plastikos》를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이성경(b.1982), 한성우(b.1987), 최봉석(b.1991)이 참여하며, 회화와 조각 작품 20 여 점이 전시됩니다. 전시 제목인 'Plastikos'는 '형태를 빚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이라는 뜻을 지닌 고대 그리스어로, 영단어 'plastic'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는 형상이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료와 행위가 만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만들어질 수 있음을 함축합니다. 본 전시는 세계를 이해하고 재현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유동성과 불확실성에 주목합니다. 세 작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의 의미에 고정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며, 그 안에 내재한 변화와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전시 서문

현상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는 지각을 완결된 세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몸을 통해 세계와 관계 맺는 경험으로 이해했는데, 이 관점에서 세계는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완전히 주어지지 않는다.[1] 이번 전시에 참여한 세 작가는 이러한 불완전함을 각자의 작업 과정에서 마주한다. 이들에게 형상은 처음부터 정해진 답을 옮겨놓은 것이라기보다, 바라보고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점차 모습을 갖추는 것에 가깝다.

이성경의 회화에서 풍경은 명확한 윤곽을 지닌 하나의 장면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그림자와 반사, 서로 겹쳐진 이미지들은 무엇이 무엇의 바깥에 있는지, 어디까지가 하나의 대상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없게 한다. 한지의 섬유질, 목탄이 남긴 흔적 역시 화면을 이루는 요소다. 작가는

[1] 모리스 메를로퐁티,『지각의 현상학』, 주성호 역,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2025, 159.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info@galleryfim.com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www.galleryfim.com

문지르고 지우는 행위를 통해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흔적을 다시 수용하거나 조정한다. 지워진 자리에는 이전의 흔적이 남고 그 위로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나면서 화면은 여러 시간과 행위가 겹쳐진 상태가 된다. 이성경의 회화에서 풍경은 그려지는 만큼 지워지고, 지우는 만큼 드러나며, 그 사이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낸다.

한성우는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며 이미지를 조율하고 물감과 물감을 쌓거나 지우기를 반복해 왔다. 최근의 작업에서는 이러한 제작 방식과 태도에 변화가 나타난다. 움직이는 대상을 포착하는 데서 나아가 붓질 자체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 관심을 두면서, 작가는 기존에 세워온 판단과 규칙을 조금씩 느슨하게 한다. 화면을 미리 구상한 이미지에 맞추기보다 붓질이 남기는 자취와 물감의 움직임을 살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연이 작업에 개입할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붓질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화면이 추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는 단순히 표현 대상이 달라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무엇을 그릴 것인가에서 회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로 관심이 이동하면서, 붓질과 물감은 화면을 형성하는 주된 요소가 된다.

최봉석의 조각에는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 맺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해석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사람은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 감정을 바탕으로 타인을 바라보기에 하나의 관계에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발견한다. 작가는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인 인물이나 대상으로 재현하기보다, 관계 속에서 생겨난 흔적과 해석의 파편을 조합해 추상적인 형태로 만든다. 그의 작업에서 조각은 하나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기호라기보다 서로 다른 해석이 겹쳐진 결과에 가깝다.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재료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일부를 분리하거나 덜어내는 과정에서 작가는 재료의 물성과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를 살핀다. 조각은 만들고 덜어내고 살피는 과정에서 비로소 하나의 상태에 도달한다.

세 작가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만, 그 과정에서 주목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이성경에게 지우기는 이미지의 소멸이 아니라 이전의 흔적 위에 다른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행위다. 한성우에게 붓질의 움직임을 받아들이는 일은 화면을 통제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살피는 과정이며, 최봉석에게 조각을 만들고 덜어내는 일은 타인에 대한 해석의 파편들을 조합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세 작가의 작업은 서로 다른 경로를 거치면서도 하나의 의도나 의미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질문한다.

작품 앞에서 우리는 완성된 결과물을 마주하지만, 그것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더해지고 지워졌는지,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으며 무엇이 끝내 남겨졌는지를 모두 알 수는 없다. 보이는 것은 눈앞에 놓인 현재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이전의 흔적과 선택되지 않은 가능성,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함께 놓여 있다. 그렇다면 어떤 작업은 언제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바뀌고, 붓질이 화면의 방향을 바꾸며, 조각이 어떤 형태에 이르러 멈추는 순간에도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읽힐 가능성을 남긴다.

본 전시의 관람객 또한 작품을 마주하며 눈앞에 놓인 것을 하나의 의미로 단정하기보다 그 안에 겹쳐진 흔적과 서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익숙한 대상을 이해한다고 여겨온 자신의 시선을 돌아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일이 언제나 완결될 수는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info@galleryfim.com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www.galleryfim.com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Plastikos'는 형상을 빚어내는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과정이자,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 앞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작가 소개

이성경 (b.1982)은 그림자와 반영, 중첩된 풍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의 장면으로 인식하는 세계가 실은 여러 관계와 층위로 이루어져 있음을 드러낸다. 한지의 섬유질과 목탄의 흔적, 지우고 다시 그리는 과정을 활용하는 그의 회화는 이미지를 명확하게 확정하기보다 흔적과 모호함을 남김으로써, 익숙한 풍경을 다르게 바라볼 가능성을 열어둔다. 울산문화예술회관, CNK 갤러리 (2025), 대구미술관 (2023)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대구미술관, 함평군립미술관 (2026), 소마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2025), 포항시립미술관 (2024)에서 열린 단체전 등에 참여했다.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2025)에 참여하였으며,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 대구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한성우 (b.1987)는 회화에 부여해 온 규칙과 통제를 조금씩 벗어나, 우연과 즉흥적인 움직임이 개입하는 과정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그의 작업에서 붓질과 물감의 흔적은 완결된 이미지를 구성하는 수단을 넘어, 화면 위에서 발생하는 회화적 움직임 그 자체로 드러난다. 작가는 고려대학교 미술학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를 졸업했다. 에이라운지 (2024, 2022)와 플레이스막 2, 송은아트큐브 (2020)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스페이스안녕,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에이라운지 (2026), 이유진갤러리, 에이라운지 (2025)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2024)와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2023)에 참여하였으며, 작업은 경기도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최봉석 (b.1991)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해석과 감정, 그로 인해 생겨나는 이해의 간극에 주목한다. 구체적인 대상을 재현하기보다 여러 해석의 파편들을 조합해 추상적인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의 조각은, 하나의 의미로 환원되지 않는 관계의 복잡성과 그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작가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미술교육과 학사와 동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2025)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황금향, 유령 (2025), 아트스페이스 103, 나무 88 갤러리, 올드벗베럴 (2024)에서 열린 단체전 등에 참여했다.

공간 소개

작품으로의 완전한 몰입 상태, 'Free Immersion'을 의미하는 FIM 은 국내외의 역량 있는 젊은 미술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잠재력 있는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성장을 함께하며, 해외 갤러리 및 큐레이터와의 협력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할 것이다.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info@galleryfim.com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www.galleryfim.com

대표작 이미지



이성경, *또 다른 그림자 26-1,* 2026, color, ink and charcoal on Korean paper, 165 x 130 cm

이미지제공 **FIM**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info@galleryfim.com
www.galleryfim.com



한성우, *fw.work no.111,* 2026, oil on canvas, 200 x 230 cm

이미지제공 **FIM**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info@galleryfim.com
www.galleryfim.com



최봉석, *믿을 수 없다는 사실만 믿을 수 있다*, 2026, ceramic, gold powder, animal glue, 24 x 32 x 44cm

이미지제공 **FIM**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info@galleryfim.com
www.galleryfim.com